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 세상으로!



양우권 열사

2주기 정신계승 추모제

2017년 5월 10일(수) / 남해 추모누리공설종합묘원

식 순

민중의례
참가단위 소개
여는 발언
약력 보고
추모사
추모시 낭독
추모사
유족 인사말
분향, 헌배

정용식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김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양효성



- 1966.7.5. 경남 남해 출생
- 1998.2.5.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주)EG테크 입사
- 2006.12.23. 금속노조 EG테크지회 설립, 조합원
- 2008~2010.4. 금속노조 광양지역지회 쟁의부장
- 2010.5.~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테크분회 분회장
- 2015.5.9. EG그룹 체육행사에서
 “노조탄압 중단” 선전
- 2015.5.10. 유서 4장을 남기고 향거 산화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마지막 잎새

故 양우권 동지에게

김해화 시인

* 2015.6.15. 양우권 노동열사민주노동자장
영결식에서 낭독된 시입니다.

열사의 삶과 투쟁

열사는 포스코의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잔인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지켰다.

열사가 입사 후 3년이 지났을 때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1년 후 사측의 회유와 협박으로 노동조합이 해체되었다.

노동조합이 사라지자 회사는 더욱 마음대로 노동자를 대했고, 그 분노가 모여 2006년 12월 23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EG테크지회가 설립되었다. 또다시 노동조합을 잃을 수 없다는 각오로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2008년 1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하던 중 당시 분회장과 교섭위원이 포스코의 회유에 넘어가 다수 조합원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했다. 남아있던 3명 중 2명마저 조합원 따돌림과 급여 하락 등 회사의 탄압에 노조를 떠났다. 이후 열사는 EG테크분회에 혼자 남았다.

회사는 2010년 10월 무기한 대기발령, 2011년 1월 집단 따돌림 지시, 2월 정직 2개월 처분까지 탄압의 수위를 높여갔다. 한편에선 노조 탈퇴시 징계 취소와 금전 보상 등을 제시했지만 열사는 이를 거부했고, 회사는 2011년 4월 열사를 부당해고 했다. 해고기간 열사는 광양제철소 1문 앞과 서울 포스코 센터, 국회, 청와대, 박지만 회장 집 앞을 오가며 투쟁을 계속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투쟁에도 늘 함께했다.

2012년 11월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열사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해고가 정당하다는 소송을 다시 걸었다. 회사는 또다시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2014년 5월 23일 열사를 복직시켰지만, 열사를 제철소 밖 사무실 책상에 덩그러니 앉혀놓고 집단 따돌림을 계속했다.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열사는 2015년 5월 10일, 인격마저 짓밟는 포스코와 EG테크의 잔인한 탄압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항거했다. 열사는 유서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라는 말을 남기며 그것이 노동자의 사명임을 일깨웠다.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잎한잎 담쟁이 잎 지고 마지막 한 잎 남아있을 때
병든 한 사람
저 잎이 지면 나도 지고 말 것이라고 믿어버렸답니다
밤새 몹시 비바람 불고 난 뒤
아침 햇살 속에 마지막 잎새 온전하게 견딘 모습 바라보고
그 사람 다시 삶의 희망 지켰는지요
비바람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잎새를 그려 넣은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푸르게 우거진 노동자 대동세상 꿈꾸던 동지
함께 하던 조합원들 울긋불긋 낱알이 나뉘어 떠나고
마지막 남아있던 조합원이 떠나고 난 뒤
이제 나 혼자 남았네
가장 인간적인 동지의 말
미워하지 못해 원망하지 못해 혼자 쓸쓸하고 우울했던
양우권 동지

혼자 노동조합에 남아
혼자 해고당하고 혼자 싸운다는 사실
싸워 이겨도 승리 아니고
복직되어 돌아와도 일할 수 없다는 사실
혼자 밥 먹고 혼자 출근하고 혼자 퇴근한다는 사실
혼자 아프고 혼자 슬퍼해야 한다는 사실
뜨거운 용광로 곁에 갈 수 없다는 사실
뜨거운 쇳물처럼 끓어오를 수 없다는 사실
사무실에도 현장에도 자리가 없고
사방을 돌아보아도 혼자 혼자 혼자라는 사실
그 깊은 늪
사실 나도 노동자로 삼십년 시인으로 삼십년 혼자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외로움의 절망에 대하여
쓸쓸하고 우울하게 잘압니다

쇠붙이로 세상을 건설하고
쇠붙이로 세상을 파괴하는
포스코는 어느덧 한 세상입니다
23조 3천억원이 노동조합을 향하여
회유하고 협박하고 탄압하여 온다면
누가 그 바람을 혼자 이기겠습니까
1년 생산한 4143만톤 쇳붙이를 퍼부어댄다면
어떤 세상이 혼자 그 무게를 견디겠습니까

23조 3천억원의 자본과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도
동지를 사지 못한 포스코와 이지테크는 실패한 장사꾼입니다
포스코에 굴복하여 자본가의 노예가 되기보다
차라리 쓰러져 영원한 노동자가 되신 동지 양우권 동지
노동자의 자존심 노동자의 사랑
포스코 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 양우권 동지는 영원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민주노조의 조합원입니다

비바람 사나운 세상
마지막 남은 잎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쓰러져버리는 나무도 있습니다